



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

2016. 3. 7.

기획조생실

1. 검토 배경

▣ 박○○ 판사(31기) 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

- 서울중앙지법의 내규는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어 왔음

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(서울중앙지법 내규)

▶ 제9조(직급별 판사회의의 조직)

- ① 직급별 판사회의에 의장과 간사를 둔다. 부장판사 회의의 간사는 3인, 단독판사회의, 배석판사회의의 간사는 각 4인으로 한다.
- ②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장은 당해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결로 선출한다.

- 2014년 김○○ 판사(30기, 現 ○○지법 부장판사)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하여 기존 관행을 깨고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

☑ 김○○ 판사 프로필

- ▶ 現 ○○지법 부장판사 (30기, 생년월일)
- ▶ 現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
 - 소신이 강하나, 절차를 중시하고, 합리적이라는 평가
 -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님
- ▶ [학력] 19○○년 ○○○고, 19○○ ○○대 법학과 졸업
- ▶ [경력]
 - 20○○년 ○○지법 판사, 20○○년 ○○○지법 판사
 - 20○○년 ○○○○, 20○○년 ○○○○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 판사
 - 20○○년 ○○○○○ 파견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 판사



- 2015년에도 김○○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기를 원하였으나, 지원자가 없어서, 관례에 따라 최선임자인 장○ 판사(29기, 現



○○지법 부장판사)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었음

-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의 경우 최선임자는 정○○ 판사(30기, 19○○년 생)이나, 박○○ 판사(31기, 19○○년생)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

☑ 박○○ 판사 프로필

- ▶ 現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단독판사 (31기, 1966. 8. 30. 생)
- ▶ **前 우리법연구회 회원**
 - 2015. 4. 16. 게시판에 박○○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 게시
- ▶ [학력] 19○○년 ○○고, 19○○년 ○○대 경제학과 졸업
- ▶ [경력]
 - 20○○년 ○○지법 판사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 판사
 - 20○○년 ○○지원 판사
 - 20○○년 ○○지법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 판사

(사진)

▣ 박○○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

-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은 ‘대법원장,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’을 ‘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,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
 -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‘대법원장,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’을 바꿀 수는 없으나, 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 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
- 박노수 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제안을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,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함

▣ 박○○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

-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명의의 건의문, 성명서 채택

-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,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① 그와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거나, ②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
-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
 - 김○○ 판사가 시도하였다가 좌절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
- 법원장,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
 - ‘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

2. 대응 방안

▣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○○ 판사 적극 지원

- 현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○○ 판사(30기, 19○○년생)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

☑ 정○○ 판사 프로필

▶ 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(교통산재) 판사 (30기, 19○○년생)

▶ [학력] 19○○년 ○○고, 19○○ ○○대 공법학과 졸업

▶ [경력]

- 20○○년 ○○지검, 20○○년 ○○지청, 20○○년 ○○지검 검사

- 20○○년 ○○지법, 20○○년 ○○지원, 20○○년 ○○○○지법 판사

(사진)

- 정○○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○○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

▣ 구체적인 지원 방법

-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



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

☑ 선거 공약 아이템

- ▶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
- ▶ 법원장,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(반목과 대립 지양)

● 지원단의 구성

- 김○○ 기획법관, 정○○ 판사(정○○ 판사와 같은 방 사용)

▣ 선거 전략

-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○○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섭외
- 정○○ 판사를 지지할만한 단독판사들(예: 형사단독판사)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
- 정○○ 판사의 경우 “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,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”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<끝>